

# 한국관광 선호도 6년째 상승

지난해 61.9%로 전년보다 2.4%p ↑, 2014년 이래 계속 상승세 유지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 인기로 한류로 대중문화 선전이 주원인

케이팝(K-Pop) 등 한류 바람에 힘입어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등이 6년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을 조사·분석한 2019 한국관광 해외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 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관광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 59.0%를 기록해 57.9%였던 2018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51.8%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한 상승세다.  
선호도 역시 전년(59.5%)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61.9%를 기록해 2014년 이래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처럼 인지도와 선호도가 계속 상승한 것은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의 인기로 힘입은

한류 등으로 인해 한국 대중문화가 선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의 분석이다. 관광공사는 또 해외의 짧은 관광 소비층의 트렌드를 반영해 디지털 홍보에 나선 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인지도 및 선호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곳은 베트남(82.7%·85.6%), 태국(82.5%·81.8%), 인도네시아(81.7%·87.3%), 필리핀(76.9%·87.8%) 등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였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인지도와 선호도가 각각 9.2%포인트, 5.0%포인트, 싱가포르의 각각 5.7%포인트, 3.5%포인트씩 상승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방한관광 2대 주력시장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관광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중국의 경우 인지도가 77.2%에서

81.8%로, 선호도가 64.5%에서 77.4%로 상승했다.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54.0%에서 58.4%로, 선호도가 28.3%에서 34.9%로 각각 올랐다.  
한편 응답자의 49.1%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통해 해외여행 체험기나 목적지 소개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75.5%), 태국(72.7%), 베트남(71.9%)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시청 경험이 많았으며 영상 시청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세계 주요 20개국 15~59세 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오창성 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독특한 소재를 발굴해 해외시장 맞춤형 광고를 제작·홍보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공사 누리집 및 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관광을 적극 홍보해 한국관광 인지도 및 선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선정

전주대박물관, 3년 연속  
올해 과거에 대한 반성  
화해 방법 제시 특별전 개최

전주대박물관(관장 김건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박물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시·교육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00개 대학박물관 회원관 중 17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전주대박물관이 유일하다.  
전주대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을 통해 한국전쟁 70주년 계기,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슬픔을 어루만지고, 좌·우 대립이 아닌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70년 전의 기억, 그리고 전쟁이 남긴 상처"란 주제로 2019년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진과 출토유물 등을 전시하며, 국방부·전쟁기념관·충북대학교 등 다른 기관들의 유물 및 자료를 협조받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들에게 듣는 토크콘서트, 전문가들에게 듣는 유해발굴 전문 강좌,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전주 지역 답사와 일제 지형도 채색하기, 한반도 네임택 만들기 등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전국의 초·중·고학생, 문화적 소외계층, 특수학교, 지역주민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피 묻힌 역사에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향후 우리에게 남은 과제로 민간인 학살 현황과 참상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전시를 기획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교훈으로 삼아 좌·우 대립이 아닌 하나로 포용하며 화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문체부, 저작권 교육 콘텐츠 온라인수업 위해 무료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용 영상이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온라인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습 대상은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총 28개의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 초·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내용과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일반인을 위한 생활 속 저작권 질의응답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각 교육과정별로 3~15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되며 동영상은 10분 내외이다.  
교육용 콘텐츠를 원하는 학교와 기관은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 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은 위원회 누리집 교육포털사이트에서 무료 수강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교육현장에서는 원격 수업에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은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원격 수업 콘텐츠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거문고 산조 (사진=국립무형유산원 제공)

### 코로나19 여파 6월 22일까지 온라인 공연·전시

국립무형유산원, '휴, 무형유산' 개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6월 22일까지 온라인 서비스 '휴(休, 무형유산)'를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누리집(http://www.nihc.go.kr)을 통해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승자들의 공연, 전시뿐 아니라 전통 놀이, 공예 등 무형유산 전 분야가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우선 13일 명인들이 들려주는 거문고산조(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와 거문고병창을, 오는 20일에는 눈으로 즐기는 신명 전통연희로 남사당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3호)의 살판, 무등놀이와 열두발놀이를 선보인다.  
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다채로운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국민이 무형유산의 가치를 친근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 코로나 예견 소설, 국내 출간

### 딘 쿤츠 '어둠의 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예견한 소설로 주목받은 딘 쿤츠의 '어둠의 눈'이 국내 출간됐다.  
번역본을 출간한 다산책방은 "'어둠의 눈'은 이례적으로 출간된 지 40년 만에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종이책이 절판된 미국에서는 오디오북만으로도 종합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둠의 눈'은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다.  
한 중국 과학자가 중국의 새로운 생화학무기에 관한 정보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의문의 사망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크리스티나 에번스가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저자 딘 쿤츠는 작품에서 의문의 사망사건의 원인을 '우한-400' 바이러스로 꼽았다. 중국 후베이성 외곽에 있는 RDNA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설정이다.  
'어둠의 눈'은 40년 전 소설에 우한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는 점과 실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어둠의 눈'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예



견한 책으로 유명세를 탔다.  
40년 전 작품이니만큼 소설은 그 시절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피와 살인, 잔혹한 묘사 등으로 익숙한 현대의 스릴러와 사뭇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크리스티나 에번스라는 캐릭터도 눈여겨 볼 만하다. 당시 범죄의 대상으로 등장했던 여성 캐릭터를 사건의 해결 주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딘 쿤츠는 미국의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의 책은 매년 2000만부 이상 팔리고 38개 언어로 80여개국에 번역된다. 5억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미국 언론은 딘 쿤츠에 대해 "스티븐 킹이 소설계의 롤링 스톤이라면 딘 쿤츠는 비틀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한편 딘 쿤츠 작가는 '어둠의 눈'을 수차례 고쳐 쓴 것으로 알려졌다. 456쪽, 심연의 위음, 다산책방, 1만6000원.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